

“고창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행복해요”

제4회 복운 경로의 날·주간보호센터 가을 나들이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들이 복지관 광장에서 경로잔치를 10월 7일 마련했다.

경로의 달을 맞아 열린 '제4회 복운 경로의 날'에는 이강수 군수, 이만우 군의장 등 내빈과 1000여명의 어르신

선운사 위탁운영 시설들 함께 개최
행복한 노년 위한 도반 역할 최선을

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경로잔치에서는 그동안 노인권의 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온 어르신 3명에 대한 시상과 실버악단, 태극군, 합창 등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어르신들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뿌리 예술단의 연극 '황혼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여명'이 무대에 올라 어르신들

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도완 슌님은 인사말을 통해 “격동의 시대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으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복지관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주간보호센터도 가을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용 어르신들과 함께 전남 장성군 홍길동 테마파크와 필암서원 일대로 행복한 가을 나들이를 13일 다녀온 것.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가을 정취를 전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들이에 참가한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등)과 거동이 불편해 야외 나들이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창군 4-H연합회 회원



고창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경로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들이 동행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수반하고 함께 답소를 나누기도 했다.

고창군 4-H연합회 이수희 회장은 “어르신들께서 가을단풍을 보면서 계절을 만끽하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주간보호센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0세 이상 치매·중풍어르신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보호하며 재가 및 여가생활 지원으로 부양가족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있다. **조동제 전북복지시장**

천수관음 광주서 국내 첫 공연한다

28~29일, 중국장애인예술단

시각·청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중국장애인예술단이 광주를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 열리는 첫번째 공식 공연이다.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10월 28-29일 양일에 걸쳐 광주광역시체육관에서 중국장애인예술단을 초청해, 'my dream'이라는 주제로 천수관음 공연을 펼친다. 중국장애인예술단은 최근 TV 프로그램 스타킹에 소개돼 큰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은 1987년 결성 이후, 60여 개국에서 연간 170회의 공연을 진행해 왔다. 2007년에는 유네스코 평화예술가로 지정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적

의 드라마'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천수관음 공연은 '수화로 말하는 나의 꿈'을 시작으로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무용단의 '천수관음' 공연에 이어, 두 팔을 잃고도 중국 최고의 장애인 무용수가 된 활양광의 '심심한 새싹'과 시각 장애인들의 무용인 '봄을 보러 가자', 그리고 한국의 가요 노래와 청각장애인들의 라틴댄스, 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한편 공연 기간인 28-31일에는 호남지역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먹거리장터를 비롯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7080가족음악축전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30일에는 호남불교포교 결집대회도 마련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한불교조동종 연수교육 성료

대한불교 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제14차 금강계단 수계법회 및 연수교육을 9월 28-30일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봉행했다. 연수 교육에는 중정예하, 총무원장 덕우 스님, 부총정 덕룡 스님, 교육원

장 광혜 스님 및 원로스님, 대덕스님, 대중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또, 일정기간에 습의교육을 받은 사미, 사미니스님이 탄생했으며, 비구, 비구니스님의 구족계 수계법회도 봉행했다. **경남남부지사 청운 스님**

자비의 연탄으로 월동 준비 '끝!'

익산불교신도회, 50가정 지원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와 불자들이 익산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연탄 1만8000장을 전달해 지역 사회의 정성이 자자하다.

익산사암연합회장 지광 스님(승림사 주지)을 비롯한 태봉사 해안 스님, 정각사 일행 스님, 관음사 덕림 스님, 복심사 해각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이춘석·조배숙 국회의원, 이한수 익산시장, 배승철 도의원 등 지역 내 기관장 등 40여 명은 10월 9일 지역 내 어려운 독거노인, 모자 가정 등 50여 가정에 연탄을 전달했다.

지광 스님은 “불자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배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늘 어려운 이웃에게 함께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중근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배달하는 것은 작은 보시행의 실천일 뿐”이라며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불보살님들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더하는 사회복지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복지시장**

“도심 속 실천도량으로 만들겠다”

동원사 주지 지장 스님 취임

광주 무등산에 위치한 동원사(주지 지장)가 새로운 주지 취임과 동시에 시민을 위한 열린 불교공부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동원사는 9월 30일 대웅전에서 지장 스님의 주지 취임법회를 가졌다. 지장 스님은 취임일성에서 “부지런한

정진을 통해 신도들의 기도와 불교공부, 사회실천 방향을 정착시켜, 광주 불교발전에 이바지 하는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백운스님, 지선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지장스님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다시 펼쳐는 불교민주화의 기록

광주 문민정사 '무등지' 통권 발행

80년대 불교민주화 기록을 고스란히 담았던 <무등>지의 합본호 출간 기념 법회가 10월 1일 광주 무등산 문민정사(주지 법선)에서 봉행됐다.

이날 간행된 합본호는 '역사와 민족과 함께한 불교민주화 운동기록'란 부제명으로 불기 2528년 5월호부터 2531년 6월호까지 간행된 31권의 합본호이다.

합본호 출간 기념 법회에는 당시 발행인이었던 지선 스님(前 백양사 주지)을 비롯해 오종렬 고문(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김정길 대표(6·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병규 목사



<무등지>의 통권 발행을 축하하는 기념 법회

당시 발행인 지선 스님 등 참석해

도서관,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예정

등 80년대 활동했던 사회운동가 및 1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했다.

기념 법회는 타종을 시작으로 불교의례에 이어 축사와 법문, 사진촬영, 차담 순으로 진행됐다.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최근에 와서야 민주화 관련 기록들을 여러 단계에서 찾으면서, 이전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문을 연 후 “절에 들어오니까 부처님이 눈을 내려뜨고 있었다. 그 의미가 풀리지 않았었다. 우리는 과거 농경 사회부터에서 정보화 사회를 넘어 마지막에는 순수한 정신의 세계에 이른다. 부처님은 그런 시공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면, 눈을 감지 않으면 괴로워서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인간을 포함한 불교는 민족, 민

주, 역사, 사회와 함께 살아있어야 한다. 공(空)과 무(無), 열반, 적정(寂靜)은 불교가 살아있어야 유지 된다”며 불교의 대중성을 강조했다.

법문에 앞서 법선 스님은 이날 “이전에 간행된 소중한 기록들이 하나둘씩 소실되어 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종렬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당시 군사독재와 싸우던 지선 스님은 ‘승병사령관’이었다.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던 ‘대중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스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이어 “군사독재가 끝나고 스님은 절로 가셨다. 조용히 절로 가셔서 불자의 길로 가셨다”며 그간의 아쉬움을 토로 했다.

이날 간행된 합본호는 470여 쪽 분량으로, 당시 발행됐던 판형과 활자를 유지했으며, 당시 글을 옮겼던, 지선 스님 고은 송수권 김준태 박석무 문병란 양홍식 고규태 등의 글이 실려 있다.

또한 간행된 책은 전부 도서관과 현대사 연구기관 등에 발송해, 현대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옛 시를 낭송하며 나누는 차 한잔에 담은 풍류

장성 백양사 담선회서 詩·禪 한마당

“지금 시를 청구하는 백양사 님을 보고, 붓을 잡고 읊조리는 능숙못함이 부끄럽네...”

단풍잎이 조금씩 물들어가는 백양사 임구. 흰 바위와 아름다운 정자가 어울려 조선 8경으로 꼽히는 백양사 쌍계루에서 스님과 성균관 유생, 교수, 지역 기관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옛 시를 낭송하는 담선회(談禪會)가 10월 8일 개최됐다.

행사에는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 김충호 성균관 교수, 김범수 원광대 문화재 보수학 교수, 이정욱 가사 문학관 해설사, 김양수 장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기관장과 문화계 인사 등이 쌍계루에서 모여 차와 옛 글 등을 전통 음악에 맞추어 낭송했다.

시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반인들은 많은 선조들의 글이 쌍계루에 있는 것을 모른다. 후손들을 위해 한문으로 된 시를 우리말로 해석해 후손들에게 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차 한잔과 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전했다.

장성군 김양수 군수는 축사를 통해 “예로부터



쌍계루에서 옛 시를 낭송하는 담선회가 열렸다.

장성은 선비의 고장이란 말을 많이 했다. 오늘 글과 노래의 만남, 불교와 유교의 만남의 자리가 의미 되새기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양사 쌍계루에 남겨진 옛 글은 400여 수 넘게 있었으나, 현재는 200여 수만 남아 전해지고 있다. 백양사는 이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한글로 번역해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옛 글 중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가락에 맞추어 낭송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파트건립사업모집공고

개요 : 아래와 같은 고승대덕 원로스님들이 원력을 세워 포교원건립불사 및 복지후생 건립사업을 결의한다.

주제 : 많은 사람에게 이익한 주택을 저가로 제공하고, 사업 이익을 재원으로 삼아 노스님들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구현한다

1. 사업 계획 : 아파트 건립부지

대지 9550(평당 250만원선)에 제공하며 주택(약 750세대)을 서민에게 저가로 공급하여 (평당 600만원선)자리이타를 실천한다

2. 사업 계획 : 포교원 및 복지원건립불사부지

임야 3000평(평당가 80만원)허가득 봉서산 끝자락 서남향으로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배산임수의 명당터입니다.

상기와 같이 뜻이 있는 건설사, 시행사, 종단, 스님, 투자자와 많은 불자님들의 참여를 신문지면을 통해 공고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 여 스 님 : 향산, 백하, 운장, 덕삼 합장
사업시행자 : 동 보 산 업 개 발 주 식 회 사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27-13번지
문 의 처 : 031)941-0000 / 010-7677-7556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특별판매

현불상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현불상 02)2004-8215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철 | 금강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철2도 인쇄